조계종, 선암사 소송 호남지역 대책위 구성

조계종 호남지역 6개 교구본사(금산사 · 백양사 · 화엄사 · 송광사 · 대흥사 · 선운사) 주지협의회가 순천 선암사 소송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계종은 "각 교구본사주지와 조계종 기획실장 주경 스님이 5월 22일 광주 시내서 모임을 갖고 이 같이 결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해 선암사의 소유권을 태고종으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1962년 통합종단 출범의 중요성을 외면한 부당한 판결임을 확인했다"며 "2심 소송 승소를 위해 지역 불교계의 역량을 모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선암사 공동관리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조계-태고종 합의를 전면 위배한 것으로 판단, 태고종 선암사 측의 신의성실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정관계 · 법조계 · 언론계 등과의 연찬회를 비롯해 연합법회, 포살법회 시 관련 자료 배포 등을 진행키로 했다. **윤호섭 기자**

"천태불자들 정진해 세상의 등불 되자"

천태종, 상월대조사 열반재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5월 22일 구인사 광명전서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월원각대조사 열반 43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하늘에 해와 달이 있어 낮과 밤을 밝히듯, 우리에게는 대조사님의 원력과 가르침이 있어 삼독과 무명번뇌의 길을 밝혀주고 있다. 우리 천태불자들이 세상의 등불이 되고 시대의 사표가 되도록 정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은 부회장 회성 정사(진각종 통리원장)가 대독한 추도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열반 43주기를 추모하는 법석이 불조의 혜명을 더욱 현창해 세상의 무명번뇌를 걷어내고 개인의 업장과 공업의 마장을 소멸시키는 청정공덕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편 법요식에는 천태종 도용 종정 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회성 정사, 도종환 국회의원, 류한우 단양군수, 한광수 금강대 총장, 이봉춘 천태불교문화연구원장 등 2만 여명이 동참했다. **김주일 기자**

미래세대委 9월 출범 계획… 개념정립 과제

발족준비팀 구성, 예산 5000만원 종무회의 통과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미래세대위원회가 오는 9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세대위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심산)는 5월 23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3층 회의실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사업기조와 목표 등을 논의한 데 이어 9월 출범을 위한 발족준비팀을 구성했다. 준비팀은 포교국장 원묵 스님 등 부위원장 3인과 사무국, 외부 청년인사 2~3인으로 꾸려진다. 또한 이에 앞서 17일 예비비 예산 5000만원이 종무회의서 통과됨에 따라 미래세대위원회 출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개념정립과 위원회 활동범위 등을 두고 준비위원들 간 이견이 제기됐다. 크게 미래세대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미래'와 '청년 이하 젊은이'로, 활동목적은 '불교계 내부'와 '종교 색채를 없앤 사회 전반' 등으로 입장이 나뉘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은 미래세대 개념과 관련해 범위를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스님은 "50대의 미래는 40대고, 40대의 미래는 30대다. 어린이 · 청소년 등으로 대상을 국한시킨다면 동련이나 파라미타, 대불련 등의 사업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며 "기존 조직의 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 간담회 비롯해
연구과제 설정 등 계획
반성 · 성찰 목소리도
"종교 초월해 접근해야"

이에 정웅기 부위원장은 "포교나 교육과 같은 부분은 총무원 각 부서에서 할 일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분들이 불교를 더욱 자신 있게 알릴 수 있도록 사회적 풍토와 여건을 만들어내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미래가 설정되지 않은 어린이부터 20대 청년 비불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을 듣는 게 순서다. 그들이 곧 미래의 사회주도층이기 때문"이라며 대상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통해 위원회 발족준비팀을 구성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 역할과 관련해서는 아동 콘텐츠 개발과 군포교 등 불교계 현안을 비롯해 지자체와 연계한 대사회적 활동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회의 말미에는 '종교를 초월한 사회적 접근'으로 압축됐다.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예로 들어 "사회노동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오랫동안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 했다. 종교를 초월해 신뢰가 쌓였고 세월호를 인양한 뒤에도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었다"며 "이는 단순히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노력이 사람들을 불교와 잇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불교가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는 반성과 성찰도 이어졌다.

중앙종회의원(직할교구) 법원 스님은 소위 '산토끼 집토끼' 비유를 들어 "불교인재들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상황에 교계를 벗어나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맞는지 걱정이다. 이미 불교계에 인재가 많은데 집토끼를 관리하지 못한 것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채은 부위원장은 "젊은 불자들은 불교계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 불교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일한 만큼 보람과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월급은 제대로 받느냐'고 묻는 친구들도 있다. 단순히 젊은이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서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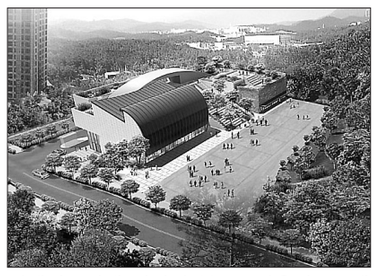
90분 동안 열띤 토론을 이어간 위원회는 차기 회의서 더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6월 미래세대 및 관련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 연구과제(종책 · 청년이슈 개발) 설정, 위원후보 확정 및 접촉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가시화'

조계종 문화부, 업체 설명회
7월 기공… 지상 2층 규모

괘불 보존 · 수리기관 목표
고풀 등 약품 저장고부터
복원처리실 등 공간 활용
불교문화재硏 이전도 고려


위례신도시에 건립될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조감도.

최초의 성보문화재 종합병원이 될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의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정현)는 5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공개입찰에 참여할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시공 및 감리 관련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센터 건립과 관련한 기본계획, 진행경과 등이 공개됐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위례신도시 제4공구 종교용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국고와 자부담을 포함한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불사로 오는 2019년 완공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대형 불화인 괘불을 전문으로 보존처리하는 국내 유일 전문기관이자 전국 사찰의 불교문화유산 관리의 종합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이 발주해 올해 초 발간한 성보문화재연구원의 용역연구보고서 〈불교문화유산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대형불화(괘불)의 전문보존처리기관으로 관리 · 운영됨을 기본운영계획으로 하고 있다. 또한 비지정불교문화재 보존처리 위탁 · 성보 문화재 아카이브 구축 · 전국 사찰 소장 성보문화재 보존이력시스템 및 과학적 모니터링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을 목표로 한다.

센터의 공간활용도 괘불 전문 복원 · 수리 기관에 걸맞게 이뤄진다. 지하 2층에는 보존처리과정에 필요한 약품을 저장하는 창고가 들어선다. 특히 괘불 복원 · 수리에 반드시 필요한 고풀(삭힌 풀)을 저장하는 공간이 마련되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지하 1층은 센터의 핵심 공간으로, 대형불화처리실 · 불화처리지원실 · 다목적보존처리실 · 지류/회화실과 같은 대형불화 보존과정에 필요한 주요 작업 공간이 배치돼 있다. 지상 1, 2층은 사무공간과 식당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2층의 경우 상호 업무 연계가 필요한 조계종 (재)불교문화재연구소의 이전을 고려해 충분한 사무공간을 마련할 것을 연구보고서는 제언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는 시공업체 등이 선정한 후 오는 7월 중 착공식을 열고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불사의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대형불화 전문 보존처리 기관이자 성보 문화재들의 보존 ·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업체 선정과 설계가 이뤄지면 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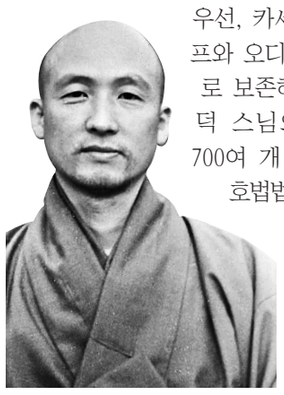
광덕 스님 육성법문 '유튜브'서 만난다

불광연구원, 채널 개설… 100편 동영상 업로드

불광법회를 개설해 도심포교의 새 장을 열었던 금하 광덕 스님〈사진〉의 육성법문을 세계 최대 무료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www.youtube.com)'서 만날 수 있게 됐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광덕 큰스님의 육성법문에 대한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불광연구원은 이를 통해 광덕 스님의 가르침과 불광사상을 국내외에 전파하고, 전법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불광연구원은 올 초부터 광덕 스님 육성법문을 동영상 콘텐츠로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우선, 카세트테이프와 오디오 파일로 보존해 온 광덕 스님의 법문 700여 개 가운데 호법법문과 경전강좌 등 100편을 1차 대상으로 선정해 동영상 콘텐츠 제작에 착수했다.

이후 △음질 보정 및 평탄화 작업, △내용 편집 △사진을 활용한 영상 제작 △자막 삽입 △재생 목록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한, 불광연구원은 광덕 스님의 육성법문 자료에 수행과 전법활동 등의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법문의 생동감을 더했다. 또한 100편의 동영상을 13개 재생 목록으로 분류해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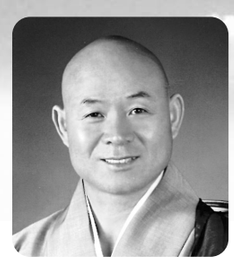
광덕 스님의 육성법문은 유튜브 검색창에서 '불광연구원'을 검색하면 바로 채널에 접속할 수 있으며, 채널 상단의 '구독하기'를 눌러 채널 구독을 하면 신규 동영상 업로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불광연구원은 "근현대 선지식 중 유튜브에 개별 채널이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튜브 외에도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개설 등 다양한 SNS 채널도 활용해 법문 동영상 공유 및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5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